Daishin 증권

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Morning Meeting Brief

THE GLOBAL / Global Daishin View

[Global Daishin View] 2026 년 3 월 4 주차

- 글로벌 증시, 시선의 중심에는 중동 정세. 23일 트럼프 대통령, 이란 공격 5일 유예 발표 주목
- 브라질, 정책 금리 인하+에너지 순수출국 주목. 플래닛 랩스, 탄탄한 수주 잔고. 야누스리빙, 美 시니어 하우징 수익성 성장 국면 수혜
- 이번 주 해외 투자 포커스: [신흥국전략] iShares MSCI Brazil ETF(EWZ), [미국주식] 플래닛 랩스(PL), [글로벌리츠] 야누스리빙(JAN)

글로벌전략 문남중, 신흥국전략 문건우, 미국주식 서영재, 글로벌리츠 김다은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유가 · 금리 이중 부담, 현금화 가능 자산의 무차별적 매도 국면

-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가 · 금리 이중 부담
- 리스크 회피심리 확대와 금 · 주도주 등 현금화 가능 자산의 무차별적 매도
- 외국인, 기관 대형주/주도주 중심 투매, 전 업종 하락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1Q26 Preview] LG 전자: 피지컬 AI(로봇)는 끌고 1Q 실적 호조가 밀다~

- 1Q26 영업이익은 1.61조원(28% yoy) 추정, 컨센서스 17.5% 상회 전망
- HS(가전) 및 MS(TV),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라인업 확대
-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1Q 실적 호조 +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 = 저평가

박강호. jiwon0.seo@daishin.com

[Industry Report] 우주: 이벤트와 기술 혁신이 만드는 장기 성장 사이클

- 2026-2027년, 글로벌 우주 이벤트 집중 구간
- New Space 시대의 6가지 핵심 기술 변화
- Top Pick '쎄트렉아이' 제시,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바스켓 투자 전략 유효

김아영. ahyoung.kim@daishin.com

THE GLOBAL
Global Daishin View

Weekly

2026년 3월 4주차

글로벌전략 문남중
신흥국전략 문건우
미국주식 서영재
글로벌리츠 김다은

- 증시, 시선의 중심에는 중동 정세. 트럼프, 이란 공격 5일 유예 발표 주목
- 플래닛 랩스, 탄탄한 수주 잔고. 아누스리빙, 美 시니어 하우징 성장 수혜
- 주식 포커스: iShares MSCI Brazil ETF(EWZ), 플래닛 랩스(PL), 아누스리빙(JAN)

[글로벌전략] 유럽 · 일본 증시, 시선의 중심에는 중동 정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불구, 주요국 공동 연대(전략비축유 방출 등), 우회 시설을 통한 사우디-UAE-이라크 원유 수출, 정상 수출 중인 이란과 중국, 인도향 일부 선박의 항행이 허용. 전쟁 확전의 Key를 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더 이상 악화일로를 걷기 어렵다는 점은 전쟁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을 낮추게 해줌. 앞으로 전쟁 확전 양상으로 전개되지만 않아도 유럽 · 일본 증시는 바닥을 다지며 반등을 모색할 것(비중확대)

[신흥국전략] iShares MSCI Brazil ETF(EWZ): 정책 금리 인하 + 에너지 순수출국 구조로 증시 하단 지지

3.18일 브라질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를 14.75%로 25bp 인하 발표. 2월 물가 상승 둔화에 주요국 중 유일하게 금리 인하. 다만 국제유가 상승에 '26년 최종정책금리/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7일(12.00%/3.91%)에서 3.16일(12.25%/4.1%) 상향 조정되며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는 축소. 그럼에도 브라질은 1) '25년 원유·정제제품 부문 무역흑자 329억 달러의 에너지 순수출 구조, 2) 3.12일 임시조치(MP 1,340호) 원유·광물성 기름 12%, 경유 50%의 수출세 부과로 중동 분쟁에도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을 축소하며 증시 하단 지지

[미국주식] 플래닛 랩스(PL): FY4Q26 실적 호조, 탄탄한 수주 잔고와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플래닛 랩스는 위성을 통해 지구 전체를 촬영하고, 해당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판매하는 기업. FY4Q26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8,682만 달러로 예상치 7,862만 달러를 상회하며 분기 최대 매출 기록. 독일, 일본에 이어 최근 스웨덴 군과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하며 분기말 기준 수주잔고는 9억 달러 기록, 이는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한 수치. 엔비디아와 GPU 기반 AI 엔진 파트너십 발표. 구글과도 우주 데이터 센터 개발 위한 R&D 파트너십

[글로벌리츠] 아누스리빙(JAN): 미국 시니어 하우징 시장의 새로운 순수 플레이어

헬스케어 리츠 Healthpeak Properties(DOC)의 시니어 하우징 자산을 현물 출자해 만든 100% RIDEA 구조의 순수 시니어 하우징 리츠. 공모가 상단(20달러)에서 8.4억달러를 조달했고, 3월 20일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8%+ 상승 마감. 미국 시니어 하우징 시장은 공급 부족(임대율 89%, 재고증가율 1% 미만)으로 수익성 성장 국면. JAN은 AFFO 기준 약 30배로 프리미엄이 있으나 웰타워 밸류에이션(40배) 대비 합리적 이며, JAN 지분가치 부각으로 DOC도 리레이팅 여지 존재

Strategy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유가 · 금리 이중 부담, 현금화 가능 자산의 무차별적 매도 국면

-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가·금리 이중 부담
- 리스크 회피심리 확대와 금·주도주 등 현금화 가능 자산 무차별적 매도
- 외국인, 기관 대형주/주도주 중심 투매, 전 업종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가·금리 이중 부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 이에 이란군은 미국의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고,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재개방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습

국제유가는 WTI가 배럴당 100달러, 브렌트유가 110달러를 상회하며 급등세를 지속.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자 국내 증시도 장 중 낙폭을 확대

고유가 환경은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를 자극하며 주요국 중앙은행의 매파적 기조를 강화. 특히 CME FedWatch 기준 미국의 연내 금리인하 기대는 사라졌고,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도 24.3%까지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이 금리인상 우려로 돌아서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유동성 기대 약화와 함께 금융시장 전반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리스크 회피심리 확대와 금·주도주 등 현금화 가능 자산 무차별적 매도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금 가격의 하락.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 안전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기대가 인상으로 반전되면서 유동성 위축 불안심리가 확대되었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회피 & 현금확보 수요가 더해지며 낙폭과 우려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금과 함께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낙폭 확대. 국내 증시에서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하던 반도체, 증권, 원전, 방산 등 현금화가 용이한 주도주/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을 실현

외국인, 기관 대형주/주도주 중심 투매, 전 업종 하락

자산 전반의 매도심리 확대되며 외국인, 기관 대형주/주도주 중심 순매도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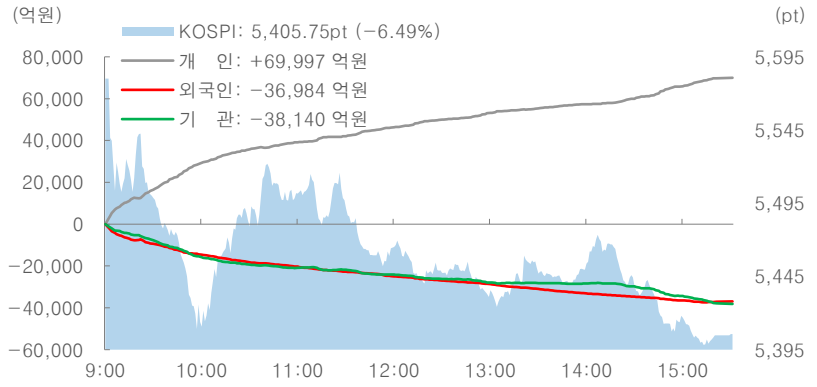
반도체: 삼성전자(-5.7%), SK하이닉스(-6.7%), 이수페타시스(-7.4%) 등

증권: 미래에셋증권(-8.6%), 키움증권(-9.9%), 삼성증권(-7.9%) 등

원전/전력기기: 두산에너빌리티(-8.1%), 한국전력(-7.2%), LS ELECTRIC(-7.1%)

방산: 한화시스템(-8.8%), 한국항공우주(-8.5%), 현대로템(-6.2%) 등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Earnings Preview

LG전자 (066570)

피지컬 AI(로봇)는 끌고 1Q 실적 호조가 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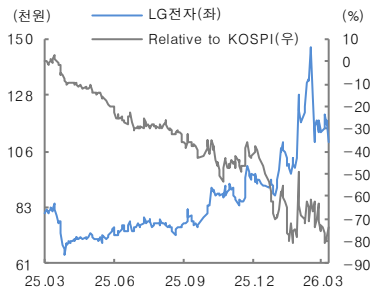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서지원RA
ji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60,000 유지
현재주가 (26.03.23)	109,50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5405.75
시가총액	18,70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56%
자본금(보통주)	81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46,700원 / 64,7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325억원
외국인지분율	33.34%
주요주주	LG 외 2 인 35.27% 국민연금공단 6.5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7.4	18.1	37.9	31.3
상대수익률	-10.7	-10.0	-11.1	-35.8



- 1Q26 영업이익은 1.61조원(28% yoy) 추정, 컨센서스 17.5% 상회 전망
- HS(가전) 및 MS(TV),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라인업 확대
-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1Q 실적 호조 +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 = 저평가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160,000원 유지

최근 중동 이슈(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로 가전의 수요 및 물류비 관련한 불확실성 환경이 부각되면서 LG전자의 주가가 조정을 보임. 중동 이슈에도 불구하고 1Q26 영업이익은 종전 추정인 1.61조원(연결 +28% yoy/흑전 qoq / 별도 1.41조원(24% yoy/흑전 qoq))을 유지. 컨센서스(1.38조원)대비 상회 예상. 중동 이슈로 부각된 요인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기 때문. 또한 주주총회(3월23일) 통해 로봇 사업을 미래의 성장 축으로 발표. 2026년 피지컬 AI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 투자의견은 매수(BUY) 및 목표주가 160,000원(2026년 주당순자산(BPS) X 목표 P/B 1.2배(성장기 평균)) 유지. 투자 포인트는

피지컬 AI 경쟁력 확대 = 엔비디아와 협력 강화, 가전, 공조 등 사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

전일(3/23) 주주총회에서 미래의 성장 축으로 로봇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언급, LG전자는 AI 엑사원을 보유, 계열사간의 시너지 효과, 축적된 스마트 팩토리의 노하우가 경쟁력으로 부각. 가정용 로봇 사업에서 경험을 반영하면 다양한 로봇에서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 자체적인 모터 경쟁력으로 액츄에이터의 내재화. AI,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로봇 관련한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상태. 초기의 피지컬 AI 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

GTC 2026에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황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파트너로 LG전자를 언급,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 LG전자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오픈 모델을 적용, 가전과 전장, 공조기 사업에서 지능형 에이전트 차원에서 협력이 예상. 초기에 가전 생태계와 연결성을 강조, 가전 제품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서 프리미엄에서 성장, 경쟁력 유지가 가능. 초기에 가정용에서 상업용, 산업용으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용이하다고 분석

1Q26 영업이익 1.61조원(28% yoy)으로 컨센서스 16.6% 상회 추정

2026년 실적 전망은 우호적, 추가적인 이익 상향에 초점을 맞출 필요.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은 39.9조원(컨센서스 34.6조원 +39.5% yoy)으로 전년대비 61% 증가로 추정. 가전 및 TV 등 수요 증가가 높다는 관점보다 우려 상황에 적극적인 대응 노력의 결과로 경쟁력 확대, 수익성 개선을 예상. MS(TV) 사업은 2025년 영업적자(7,509억원)에서 2026년 1Q 및 연간(899억원)으로 흑자전환을 예상. 2025년 인력효율화로 고정비 축소, 2026년 중국의 저가 정책에 대응한 LCD TV의 라인업 확대, OLED TV의 판매 증가(스포츠 이벤트 및 가격 전략의 다변화)가 예상. 또한 가전(HS)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한 미국, 중남미에서 생산 비중 확대,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프리미엄 영역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 VS(전장) 사업은 수익성 중심의 매출 전략으로 2026년에도 매출 증가보다 수익성 개선에 초점, 이익 성장이 유효하다고 판단

Industry Report ★★★★★

스몰캡 (우주)

우주, 이벤트와 기술혁신이 만드는 장기 성장 사이클

김아영 ahyoung.kim@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신규

- 2026-2027년, 글로벌 우주 이벤트 집중 구간
- New Space 시대의 6가지 핵심 기술 변화
- Top-pick '쎄트렉아이' 제시, 국가 전략산업으로 바스켓 투자전략 유효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쎄트렉아이	N.R	N.R
인텔리안테크	N.R	N.R
스피어	N.R	N.R
이노스페이스	N.R	N.R
이노와이어리스	N.R	N.R
제노코	N.R	N.R
컨텍	N.R	N.R

2026-2027년, 글로벌 우주 이벤트 집중 구간

2026-2027년은 글로벌 주요 우주 이벤트가 집중되는 시기로 우주 산업에 대한 시장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미국과 중국의 달 탐사 경쟁, 유럽의 발사 캐던스 확대, LEO 상업 우주 정거장 전환 등 글로벌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며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성장이 예상됨. 국내에서도 누리호 반복 발사, 군집 정찰위성 배치, 차세대 중형위성 발사,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다양한 우주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 이러한 이벤트들은 기술 진전과 정책 변화가 동시에 반영되는 영역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모니터링이 필요

우주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기술 트렌드

우주 산업은 재사용 발사체, 위성 소형화/대량생산, 군집 위성 확대 등의 기술 발전을 통해 발사/위성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위성 수 증가로 우주 교통관리(STM), 궤도상 서비스(OSAM), 위성통신 인프라 등 새로운 산업 영역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음. 또한, 지구관측(EO) 분야는 센서 중심에서 데이터/AI 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되며 우주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

Top Pick: 쎄트렉아이, 바스켓으로 매수 전략 추천

글로벌 우주 산업은 미국, 중국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발사체/위성/통신 등 핵심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산업으로 각국이 자국 산업 기반 확보에 나서고 있음.** 한국 역시 누리호 이후 우주 전 밸류체인 구축 단계에 있으며, 초기 시장을 선점한 국내 기업들이 향후 전략적 플레이어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우주 산업은 정책과 이벤트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장기 성장 산업으로 판단되며, 핵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 바스켓 투자 및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

Top Pick을 EO 서비스 확장과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쎄트렉아이로 제시. 최근 중동 및 지정학적 갈등 확대 속에서 정찰 및 지구관측 위성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 역시 쎄트렉아이의 추가 리레이팅 이유. 인텔리안 테크(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확대와 메가컨스텔레이션 구축에 따른 지상 단말 수요 증가의 직접 수혜), 스피어(스페이스X 상장과 전방시장 확대에 따른 특수합금 수요 기하급수적 성장), 이노스페이스(국내 유일 소형발사체), 이노와이어리스(위성통신 인프라, 시험 장비로 통신 capex 확대 직접 수혜), 제노코(위성 전장 및 항공우주 전자장비), 컨텍(아시아 최대 위성 지상국 네트워크 서비스)을 관심종목으로 제시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